수금지화목토천해명. 어릴 때부터 당연히 외우고 있었던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이었다. 명왕성이 퇴출되던 날, 학급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상식이 전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 때 반 아이들 사이에서 나돌던 말이 “지금까지 같은 태양계 식구였는데 그냥 놔두지 왜 굳이 빼는 거야?” 였다. 이웃 행성들과는 차이가 나는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명왕성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지만, 지금도 그 때와 다르지 않게 ‘퇴출까지는 좀 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히 정이 가는 것이다.

‘동과서’를 보고 점점 서구화되어가는 요즘 세대들이 떠올랐다. 개개인을 중요시하고 명사 위주로 말을 하는 서양인들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SNS로 단답형 대화만 하는 우리 MZ세대들 말이다. 상호간의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 동양의 문화와 점점 동떨어져 버리는, 마치 명왕성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양계에서 퇴출되었다고 해도, 명왕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묵묵히 주변 행성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로 넘어오고 점점 더 사람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들 내면의 ‘동양의 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SNS 어플이 아닌 전화나 만남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